

‘입사 7개월만에 뇌출혈’ 콜센터 직원…대법 “업무상 재해”

원고, 업계 1위 무인주차장 콜센터 상담원 근무 근무 7개월만에 ‘뇌기저핵출혈’…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직장을 옮긴 지 7개월 만에 뇌출혈 진단을 받은 콜센터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콜센터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

고 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용역업체와 파견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2월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무인주차장 업체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근무 시간은 3교대제 가운데 석간 조이며 주 5일을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일했다. A씨는 전국 600개 이상 가맹업체를 둔 업계 1위 무인주차장 운영업체 이용자들의 전화 문의에 대응하는 일을 맡았다. 주로 무인정산기 이용방법이나 요금 정산, 애프터서비스(A/S)를 안내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께 회사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우측 반신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고,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1심은 “해당 질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별도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2심은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 강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오히려 A씨의 고혈압을

문제 삼으며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원고는 과거에도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전 근무지보다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서 해당 질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최이슬기자



오세훈-박경귀,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에서 물을 뿌리고 있다. 친수식은 홍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 아산 현충사 경내에서 우물물을 길어와 동상을 물로 씻기는 행사다.

전장연 “5·18에 광주서 지하철 탄다”

5월 17일 광주송정역에서 탑승 시위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광주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국무총리 면담요청 및 지하철 행동 임장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민주주의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광주에서 지하철을 타겠다”며 “작년처럼 5월17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에서 탑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신 서울에서는 당분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한다고도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20일 국무총리실에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사업 예산 증가를 요구했고, 국무총리실은 22일 요구사항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슬비기자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

환경부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주민에게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광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주민에게 지원되던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조정서비스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에게도 제공된다.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맞벌이 부부 등 중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야간(21시까지) 층간소음 방문상담

서비스를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제공한다. 광주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상담자 양성교육도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야간상담과 소음측정기 대여 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